

남사에담촌

■ 코스 지도

옛스러운 담장 너머로 펼쳐지는 고택들의 향연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남사에담촌 개요	민속
2	이씨고가	이씨고가, 회화나무, 사랑채	문화재, 일화
3	최씨고가	최씨고가, 곳간채, 홍매	문화재, 일화
4	사양정사와 선명당	사양정사와 배롱나무 그리고 흥단풍	문화재 일화
5	하씨고가 원정매와 감나무	하씨고가 원정매, 감나무	문화재
6	이동서당	면우 광종석 유적	문화재
7	에담길	남사에담촌 둘레길인 '에담길'	문화재
8	이사재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의 인연	문화재

1. 구간소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꼽으라 하면 참 많은 마을들이 떠오르지만 그중에서도 산청의 '남사 예담촌'은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서면 걷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일단 잘 보존된 토담과 돌담으로 만들어진 골목길이 굽이굽이 이어지고 봄이면 담장너머로 저마다 자랑하듯 뻗은 가지에서 하얀 매화꽃들이 눈이 부시게 피어납니다.

지리산 천왕봉으로 가는 길목이라 자칫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옛 부터 선한 부자가 되길 꿈꾼다면 한 번쯤은 들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운이 좋은 곳이죠.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경주 최씨'도 이곳 남사 예담촌 '이씨고가'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용꿈을 꾸고 그 후 부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걸어 볼 예담촌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옛 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토담과 돌담은 다른 지역에서 보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을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어떤 특징인지 문화관광해설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담장이란 원래 집의 경계를 따라 쌓아올려 사생활의 노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마을의 돌담은 다른 마을의 돌담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죠. 이는 말을 타더라도 안이 보이지 않게 한 것인데요 양반가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담장을 보면, 양반가의 담은 토담을 쌓아 기와를 얹었고, 일반 민가의 담은 일반적인 돌담으로 쌓은 것도 흥미롭습니다. 담 위의 기와는 빗물에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돌담길을 거닐면서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남사예담촌에는 이장님도 계시지만 여전히 촌장님도 계신다고 하네요.

특히 주민들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3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인 '동약계'가 아직도 건재하답니다.

동약계는 '상부상조', '권선징악'등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윤리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형성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이야말로 이 마을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잘 보존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2 이씨고가

남사예담촌에서 제일 처음 가볼 곳은 성주 이씨의 종가이면서 남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이씨고가’입니다.

이 집은 1700년대 건축물인데요, 안채와 사랑채 같은 경우는 각각 18세기와 20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이씨 고가’만 잘 둘러보아도 한옥이 변천해 온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집이죠.

이씨 고가를 들어가는 입구에는 ‘엑스(X) 자’ 형 태의 회화나무 두 그루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서로 안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부부나무로도 불립니다.

이 나무 아래를 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가면 부부애가 돈독해져 백년해로를 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 회화나무는 사람의 머리와 마음을 맑게 하는 선비나무로도 알려져 있어 양반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선호하는 나무인데요, 이씨고가에는 이곳뿐 아니라 사랑채와 외양간 사이에도 아주 커다란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회화나무는 인조로부터 하사받은 나무로 수령이 450년 정도 됐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큼니다. ‘삼신할머니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면 아이가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 회화나무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화기’, 즉 불을 막기 위해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맞아 마을이 온통 불바다였을 때도 이씨고가만큼은 멀쩡했다고 하더라구요. 괜히 예사 나무는 아닌 것 같죠? 그럼 화기로부터 이씨고가를 막아 낸 나무도 불 견 전통 한옥 이씨 고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문을 지나셨다면 눈치 채셨을지 모르지만, 이 집의 대문은 일반 양반집 대문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집 대문은 북쪽을 향하지 않는데 반해 이 집의 대문은 북쪽을 향해 있고, 거기다가 약간 낮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선비가 문을 드나들 때마다 임금이 계신 방향으로 머리를 숙여 예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아까 말씀 드린 회화나무가 보입니다. 설명을 들으셨으니 예사 나무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사랑채 기둥을 주목해 보세요. 기둥이 둥글하게 생겼죠?

근데 둥근 기둥 양식은 조선중기까지 주로 꺾이나 관청, 사찰, 서원에서만 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씨고가 사랑채의 기둥이 왜 그런 양식으로 지어졌을까요? 그건 태조 이성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씨고가에 맨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한 분은 태조 이성계의 사위였던 ‘이재 선생’의 손자로 이 집을 지을 때 왕께서 직접 궁궐에서 일하는 목수들을 보내 집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씨고가의 기둥은 모두 둥근 형태일까요? 아닙니다.

안채의 기둥만 보더라도 사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자의 주거공간과 여자의 주거 공간을 기둥의 모양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당 한 쪽에는 집안의 역사가 담긴 우물이 있고 사랑채 앞에는 높은 굴뚝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 연못에 물이 담겨 있어 굴뚝 연기가 연못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풍류를 즐겼다고 하네요.

3. 최씨고가

이제 가 볼 곳은 최씨 고가입니다. 최씨고가로 통하는 ‘ㄱ’자 골목은 남사에담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목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씨고가의 솥을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말 그대로 최부자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최부자집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집이 한 해에 쌀농사를 3천석씩 짓던 집이었거든요.

최씨 고가에는 예전의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키, 채소 고리, 멍석, 디딜방아, 절구 등의 도구와 쌀 찻던 곳도 남아 있어 그 시절의 살림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죠.

최씨 고가에는 태형을 치는 장비도 있는데요, 머슴들이 일을 잘 하지 않는다거나 양반에게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곳에서 곤장을 쳤다고 해요. 씩씩하지만 그 시대의 생활양식 중 하나로 이해하면 또 다른 역사공부가 되기도 할 것 같네요.

특히 최씨 고가에서는 ‘무병장수’를 연상시키는 거북의 문양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대문 빗장이 거북 모양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남자와 여자는 왼쪽과 오른쪽 각각 다른 거북 문양을 만지며 지났다고 해요. 옛 고가들이 남녀 사용 공간을 나뉘던 것처럼 이 빗장 또한 남자용과 여자용이 있었던 거죠

최씨고가에 오셨으면 아주 유명한 나무를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씨 고가에서 회화나무가 유명했다면 최씨 고가에서는 사랑채 우측에 있는 홍매가 유명합니다.

산청은 매화로 워낙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최씨고가에 피는 홍매화는 자태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지요. 수령 약 230년 된 이 홍매화는 ‘최씨매’로 불리며 최씨고가의 넓은 마당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목련과 동백나무, 향나무와 함께 고고한 기품을 자랑하죠. 특히 이곳 홍매화는 사랑채에서 볼 때 가장 멋스럽다고 하는데요, 사랑채에 앉아 창을 통해 내다보면 한 폭의 그림같은 이 매화에서 은은하게 향기를 내는 순간 무아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담장 옆으로 와 보세요. 담장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웬지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울음소리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남사에담촌에는 정씨고가와 최씨고가가 이웃해 있는데, 높은 담을 사이에 두고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정씨고가의 별당 채에는 예쁜 아씨가 살았고 최씨고가에는 잘생긴 선비가 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담에 난 구멍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없는 눈빛으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별당 아씨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그만 서울 정승댁 자제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도령이 이를 알고 찾아가 결혼을 애원했지만 별당아씨는 결국 서울로 시집을 가고 말았답니다. 최도령은 시름에 잠겨 매일 담 아래에서 울면서 지내다 결국 지리산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떠나기 전 최도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담 아래서 내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요.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매년 7월이면 남사 예담촌 담장에서 최도령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리는 진짜 사람 울음소리가 아니라 벽을 타고 올라간 담쟁이 잎과 돌담 사이 난 구멍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4. 사양정사

이제 둘러 볼 곳은 사양정사입니다.

사양정사로 이어지는 골목은 남사에담촌의 다른 골목보다 좀 더 투박한 질감과 곡선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감나무와 잘 어우러진 이 골목을 천천히 거닐다 보면 바로 눈 앞에 사양정사의 솟을 대문을 만나게 됩니다.

1920년에 지어진 근대 한옥인 사양정사는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선생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 선친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사당과 부속건물입니다.

한 눈에 보더라도 이 정사를 지은 집안이 굉장한 부자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재 하나하나에 들어 간 정성은 물론이고 재료의 희소성 역시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일단 충절을 상징하는 홍살을 넣은 솟을대문부터 그 위엄이 대단합니다.

집안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예부터 양반들이 사랑채, 안채보다 높게 솟아짓는 대문이 솟을대문입니다. 물론 조선 말기에는 돈만 있으면 다들 솟을 대문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이 집의 솟을 대문은 수준이 다릅니다.

특히 다른 어느 솟을 대문보다 규모가 크고요, 쓰인 자재에서 집안의 품격은 물론이고 풍부한 경제력까지 드러내고 있죠. 웬지 근접하기 어려운 ‘지역유지’의 위엄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특히 이 곳 기둥에 쓰인 나무는 모두 백두산에서 별목한 느티나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벤 나무들을 여기까지 운반해서 목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지요. 사양정사의 특징은 이전의 한옥들에 비해 천정이 높고, 다락과 벽장 등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새로운 건축 재료인 유리를 사용하기도 해서 근대기 한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난 담장의 작은 문을 나서면 ‘선명당’이라는 고택이 한 채 있습니다. 살림집으로 사용되었던 안채 뒤로 지어진 별도의 건물입니다.

또 이곳 사양정사에는 수령이 약 220년 이상 된 거대한 단풍나무가 서 있는데요, 이 단풍나무는 전국에 보급된 홍단풍의 어미나무로 봄에는 잎이 붉은색이지만 여름에는 녹색으로 물들고 가을에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는 귀한 나무입니다.

이 사양정사에는 단풍나무도 유명하지만 배롱나무, 즉 백일홍나무가 유명합니다.

이 배롱나무는 수령 약 120년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됐는데요, 이 나무가 심어진 데에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문화관광해설사님께 그 의미를 들어볼까요?

"이 배롱나무는 한 마디로 정씨 집안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배롱나무에 꽃이 피면 정씨 집안은 공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배롱나무는 꽃이 7~8월 사이에 피는데, 이 즈음이면 쌀이 떨어져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시절, 배고픈 사람들은 아직 피지 않는 배롱나무에 꽃이라도 그려 넣고 싶었을 겁니다.

항상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었기에 이 곳 정씨집안도 오랫동안 평안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5. 하씨고가 원정매와 감나무

단속사 터의 '정당매'와 산천재의 '남명매', 그리고 이 곳 하씨고가의 '원정매'를 산청의 명물, '산청 삼매'라고 부릅니다.

통정 강희백 선생께서 단속사에서 공부하던 때 심었던 매화를 '정당매'. 남명 조식선생께서 '산천재' 마당에 심은 것이 '남명매'입니다

이곳 '하씨고가'에 있는 '원정매'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정공 하즙 선생께서 심으셨다 하여 '원정매'라는 이름이 붙은 이 매화나무는 수령이 약 670년 이상 이라고 하니 정말 오래된 고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해 전 추운 겨울 동사해서 고사목이 됐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동사하기 몇 해 전 밑둥치에서 나온 가지가 살아남아 탐스런 홍매화를 피우고 있지요. 또 원정매 바로 옆에는 씨앗이 떨어져 따로 뿌리를 내린 매화도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초라해진 '하씨 고택'에는 원정공이 살던 옛집이라는 의미로 '원정구려'란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대원군의 친필로 '원정공이 살던 옛집'이라는 뜻입니다.

서슬 퍼렇던 시절의 대원군도 이 원정매를 보기 위해 '남사 예담춘'을 찾았을 정도로 이 곳의 홍매화는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화 앞에는 하즙의 '영매시'가 새겨져 있지요. 잠시 감상해보시죠.

*'진양지에 일찍 심은 한 그루 매화
찬 겨울 꽃망을 나를 위해 피었네
밝은 창에 글 읽으며 향 피우고 앉았으니
한 점 티끌도 오는 것이 없어라'*

뒤뜰의 돌담 너머에는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문정공 하연선생이 일곱 살 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심었다고 하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약 600여년의 세월동안 마을의 길흉화복을 함께 한 이 감나무에는 지금도 가을이면 여전히 다홍빛 홍시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하네요.

6. 이동서당

앞에 ‘일직문’이라는 현판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동서당에 도착하신 겁니다.

남사예담촌의 고택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곳은 ‘면우 곽종석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유학자들과 제자들이 세운 면우 선생의 유적지입니다.

면우 곽종석 선생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면우선생은 구한말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광복운동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아 ‘통정대부’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 정도 되는 위치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올바른 학문을 높이 장려해야 하고, 민심을 수습해 단결하게 해야 하고, 군사의 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국가의 재산확보를 위해 절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던 면우선생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의 폐기와 함께 매국노들의 처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선생의 나이 74세에 ‘파리 평화회의’에 보낼 ‘파리장서’ 즉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서한’을 작성해 보내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투옥되었고 옥고를 치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위패를 모시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는 1919년에 먼저 세워지고 이후 1920년에 이동서당이 세워졌습니다.

보통 위대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사당’이 세워 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이곳에는 ‘서당’이 세워졌을까요?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가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면우선생의 업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학자’로서의 행보였습니다.

이미 4살 때부터 사서삼경을 배웠는가 하면 20대 초반부터 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쳤던 면우 선생은 ‘한국유학사를 결산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또한 선생은 유학에 머물지 않고 한문학, 지리, 농업, 병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면우 선생의 학자로서의 업적을 후세들이 받들기 위해 ‘사당’이 아닌 ‘서당’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곳 이외에 경남 거창의 ‘다천서당’, 전남 곡성의 ‘산양재’가 선생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7. 예담길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동서당’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잘 정리된 길을 보셨을겁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남사천을 따라 나무로 된 난간이 잘 정비된 이 길은 기분 좋은 산책길이자 남사 예담촌의 둘레길인 ‘예담길’입니다. ‘예담길’의 ‘예담’은 ‘옛 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은 마을 앞 물레방아인데요 이 물레방아는 남사 예담촌이 ‘농촌 전통 테마마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개구쟁이 길, 배움의 길, 자립의 길, 뜻을 이루는 길, 인생을 아는 길, 평온의 길, 마음의 길이라는 개성 있는 이름을 가진 길들로 구성된 이 길은 ‘남사천’을 따라 뻗어있습니다. 총 길이는 3.5km로 넉넉잡고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담길을 따라 걷다보면 마을 주변의 ‘니구산’이나 ‘이사재’를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 오르면 마을 풍경을 한 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예담길을 걷다보면 저녁 무렵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을 곳곳에 우뚝 솟은 나무에 새벽별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운치가 있습니다.

길을 조성하면서 최대한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 ‘예담길’을 걷다 보면 남사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자연스레 빠져 들게 됩니다.

8. 이사재

마을을 흐르는 남사천을 따라 언덕길에 올라 도착한 이곳은 ‘이사재’입니다.

조선 명종 후반의 ‘임격정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워 호조판서까지 지낸 ‘송월당 박호원’의 재실입니다.

‘재실’은 조상의 선산근처에 지어진 생활공간을 의미합니다.

대문을 지나면 가정집을 통과해야만 ‘이사재’로 올라 갈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로 개의치 않으니 편안하게 이곳을 통과하셔도 됩니다.

‘이사재’는 화려한 듯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건축물로 유명한데요, 건축물과 함께 무엇보다 소담한 뜰의 연못과 백일홍, 그리고 대숲의 조화가 뛰어나지요. 정면 뜰에 심은 홍매 역시 남사마을에서 이름 있는 매화로 봄날엔 그 향취가 그윽하게 퍼집니다.

또, 한 여름 배롱나무에서 백일홍이 필 때는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사재’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서면 남사 예담촌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사천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마을의 고가와 돌담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있는 풍경에 마을이 한없이 평화롭게 보여 마음마저도 평화로워집니다.

최근 이곳 ‘이사재’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백의종군로’로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관시절 두 번의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함경도에서 여진족을 격퇴할 때였으며, 두 번째는 삼수군 통제사를 지낼 때 었습니다.

두 번째 백의종군길에 오른 장군은 경상남도의 ‘하동과 진주’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한 산청의 남사 예담촌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난중일기에 적힌 내용을 보면 장군이 권을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을 하던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전에 하직인사를 올리러 길을 떠났는데요, 그 때 이곳 ‘이사재’에서 하룻밤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난중일기에 남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사재’ 입구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일숙구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돌담으로 이루어진 골목과 오래된 나무들을 품고 있는 고택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새 다양한 역사의 한 자락과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남사예담촌.

단순히 아름다운 마을로만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